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민관협의체 구축 장기화 대비해야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격상
광주 확진자 7명 추가
의료인 중심 컨트롤타워 갖춰
감염병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결국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 단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관련기사 2·3·4·6·7·14면〉 이번엔 전파속도와 확진자 증가 추세가 빠르고, 장기전 양상을 띠는 등 '지역 감염'이 현실화되면서 국정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이를 막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광주에선 개학을 준비하던 초등학교 교사가까지 감염됐다. 확진자들은 식당과 PC방, 대형마트는 물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놀이공원과 동물원까지 드나들었다. 시민들은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등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최일선에서 막고 있는 광주 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수시로 발생하는 확진자 파악과 이들의 동선을 쫓는 것도 힘겨운 모양새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됐지만, 이를 통제하고 관리·감축할 의료인 중심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다.

지역 의료계에선 "이미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 지금이라도 광주시를 주축으로 의료 전문가를 단장으로 한 가정 '코로나19 민관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피해 최소화하고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5년 국내는 물론 전세계를 휩쓸었던 메르스 사태 당시 의료인이 주축이던 민관협의체를 발 빠르게 구성해 '정정 광주'를 유지하고,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23일 광주시와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광주에서 확진자 2명이 완쾌 판정을 받은 이후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총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모두 신천지교회와 연관돼 있다. 이들과 접촉해 자가격리된 사람은 198명이다.

이날 오전에만 126명 환자(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방문)의 아내인 진월초교 교사 A씨와 신천지 교인인 164명 환자의 아내 B씨가 양성으로 확진됐다. 지난 20일에는 확진자 C씨가 시내버스를 4차례나 타고 우치공원과 동물원 등을 방문했다. 확진자 D씨는 홈플러스 광주 계림점에

머물기도 했다.

주말 사이 광주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이들이 도심 곳곳을 누빈 것으로 드러났다. 신천지교회의 특성상 외부노출을 꺼리고, 밀집된 장소에서 종교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집단 감염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광주-전남 신천지 교인은 5만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금은 시간 싸움"이라며 "모두 조사할 수는 없으니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녀왔거나 다녀온 이들과 접촉한 사람을 중심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감염자 조사와는 별도로, 추가 감염자 급증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의료계에선 광주시가 주도하고 있는 행정 위주의 방역 시스템과 함께 의료계 주도의 감염병 시스템이 병행 기동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현지를 경·중증으로 구분하고, 보건소와 1, 2, 3차 병원간 진료 지침을 세분화하는 등 체계적인 감염의료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중증환자가 몰려있는 전남대·조선대 병원 등은 선별진료 기능을 축소하고, 보건소 및 이동 검체채취팀 확대 등을 통해 기능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같은 각종 의료적 조치를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선 감염병 전문 의료인이 대 표를 맡고, 광주시가 적극 지원하는 이른 바 힘있는 '민관 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이라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광주시는 현재 담당 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역감염병 협력위원회(의사 4명 포함)와 민관 의료협의체 등이 구성돼 있다는 입장이지만, 활동은 미미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딩 빈 광주 총장로 광주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또다시 발생한 뒤 첫 휴일인 23일 오후 광주시 동구 총장로가 인적이 끊겨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해배 기자choi@kwangju.co.kr

전국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개학 일주일 연기

3월 2일에서 9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학교의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전국 유치

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

학을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루

라고 명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단

위 학교의 개학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

인 개학연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맞

벌이부부 자녀 등을 위해 유치원과 초·중·

고에서 긴급돌봄이 제공된다.

아울러 정부는 직장인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범정부 개

학연기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

다. 학교처럼 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

에도 휴원과 등원중지가 권고됐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총선 D-51 ...민주 경선 시작·호남 3당 합당 구체화

4·15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전남지역 경선이 본격

레이스에 들어갔고, 바른미래당·대한신

당·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기반으로 한 야

권 3당 합당이 구체화하는 등 여·야의 선거

전이 본격 시작됐다. 〈관련기사 4, 5면〉

민주당은 잇단 고소·고발 등 내부 잡음

을 잠재우면서 대외를 정비하고 있고, 현

역 국회의원이 다수인 호남 기반 3당(이하

'호남 3당')도 합당 절차를 진행하면서 전

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

학을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루

라고 명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단

위 학교의 개학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

인 개학연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맞

벌이부부 자녀 등을 위해 유치원과 초·중·

고에서 긴급돌봄이 제공된다.

아울러 정부는 직장인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범정부 개

학연기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

다. 학교처럼 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

에도 휴원과 등원중지가 권고됐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

학을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루

라고 명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단

위 학교의 개학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

인 개학연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맞

벌이부부 자녀 등을 위해 유치원과 초·중·

고에서 긴급돌봄이 제공된다.

아울러 정부는 직장인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범정부 개

학연기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

다. 학교처럼 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

에도 휴원과 등원중지가 권고됐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위한 일정을 진행한다.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호남 기

반의 신당은 24일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호

남 기반 신당은 총선 일정이 촉박한데다 관

리 당원 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당원투표 등

의 경선보다는 심사 등으로 경선 작업을 대

서구를 고삼석·양향자·이남재
광양곡성구례 권향엽·서동용
민주당 경선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 공관위(공직후보자추천 관리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광양·곡성·구례 지역구 후보를 권향엽·서동용 예비후보 간의 2인 경선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공관위는 지난 21일 광주 서구를 후보를 고삼석·양향자·이남재 예비후보 간의 3자 경선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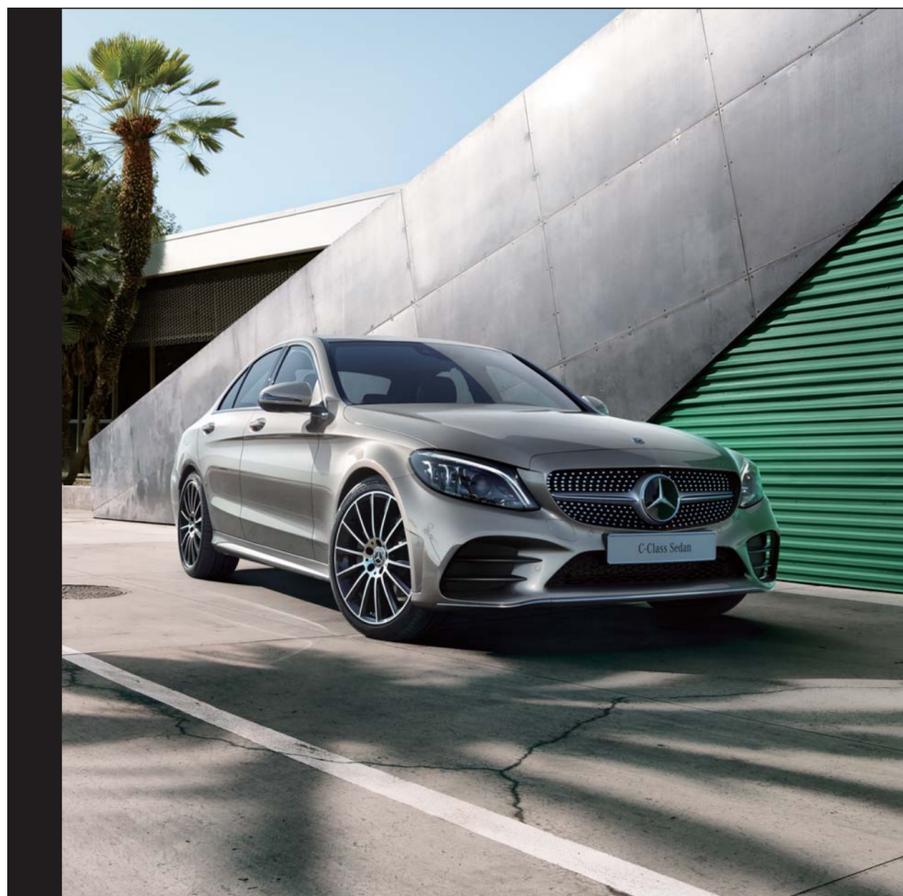
이로써 민주당은 광주-전남지역 18개 선거구 가운데 14곳을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고 1곳은 단수 후보로 결정했다. 반면, 광주 서구갑과 순천, 여수갑 3곳의 경선 여부 결정은 보류됐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공관위를 열어 경선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광주 서구갑은 광주의 유일한 현역이자 시장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갑석 의원이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 추가 공모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모에 응한 후보가 없어 단수 후보가 유력하다. 여수 갑과 순천의 경우, 선거구 확정위의 인구 상하한선(하한13만6665명, 상한 27만3129명)에 걸려 합구 및 분구 대상에 포함된 상황여서 경선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여수 갑은 현재 선거구 유지가 거의 확실하고 순천은 여야 합의에 따라 분구 여부가 결정된다. 이런 가운데 순천과 여수 갑의 경선 결정이 장기간 보류되면서 각종 루머가 확대 재생산, 민심 이반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순천과 여수 갑의 경우, 경선 원칙이 지켜질 것이며 다만 여야의 선거구 확정 협상에 따라 경선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3일 현재, 광주-전남에서 3인 경선이 결정된 곳은 광주 서구을과 나주·화순 등 2곳이며 11곳은 2인 경선이 치러진다. 이개호 의원이 공천을 신청한 담양·영광·함평·장성군은 유일하게 단수후보 지역으로 결정됐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l(도시연비: 13.2km/l, 고속도로연비: 16.3km/l),
등급: 2등급, 복합CO2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